소공동체 모임순서 (복음나누기 7단계)

+ 성호경
+ 이달의 시작 성가 (15장)
+ 출석확인과 인사 나눔
+ 소공동체 기도문
+ 복음 나누기 7단계 (이달의 복음: 마태 3,14-17)

1단계 : 주님을 초대한다.
- 한 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 성경 본문을 2번 읽는다.
- ....복음 ....장을 펴주십시오.(참가자들이 본문을 찾을 때까지 기다린 후)
- 어느 분이 ...장 ...절에서 ...절까지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새기며 고요히 되뇝니다.

3단계 : 성경 본문 중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세 번씩 외쳐주십시오.
- 어느 분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4단계 :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5단계 :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 나누기가 끝난 후 "함께하는 복음 묵상"을 읽는다.

6단계 :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고, 실천을 다짐한다.
- 지난 달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 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니다.
- 이번 달에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각자)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정합시다.

※'5분 신앙상식'을 공부하고, 공지사항, 건의사항, 차기장소 결정을 한다.

7단계 : 자유롭게 기도한다. (손을 잡고~)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 소공동체가
+ 영광송 및 성호경

진행자가 기억해야 할 사항

① 복음나누기 7단계에 제시된 그대로("한 두 분이...") 각 단계를 읽어주십시오.
② 참가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3단계, 5단계에서는 진행자도 할 수 있으나, 첫 발언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먼저 발언하게 하십시오.
③ 마지막 발표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발언하게 되면 진행자가 마치 정답을 주는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④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십시오.
⑤ 각 단계에서는 참가자들의 참여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느긋하게 기다리십시오.

함께하는 복음 묵상

마태 3,14-17

오늘은 새해 들어 두 번째 주일로서 주님세례축일입니다. 주님께서 장성하여 세례 받으시는 것을 기념하며 아쉽지만 교회는 오늘 주일로서 성탄시기를 끝내게 됩니다. 이 축일의 의미는 하느님이며 사람이신 주님께서 피조물이며 인간인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죄를 사해주시는 분(예수님)이 죄의 사함을 받아야 하는 사람(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사업을 하시기에 앞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고, 하느님의 뜻을 따름으로서 성령과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과 분명히 다른 것은 우리는 우리 구원을 위하여 세례를 받지만, 주님은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죄 없으신 분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 비우심으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224항 참조).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세례성사가 예수님의 지극한 겸손과 낮추임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에 더욱 보답하는 삶을 살 것을 결심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의 세례를 기념하면서 진정으로 우리의 세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세례성사가 다음과 같은 은총을 전달한다고 가르칩니다. “세례의 효과 또는 세례의 은총은 풍요로운 것이다. 이 은총으로 세례 받은 사람은 원죄와 모든 본죄를 용서받고, 성부의 양자, 그리스도의 지체, 성령의 성전이 되어 새롭게 태어난다. 그 결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한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한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279항 참조)

이를 다시 요약하면 세례성사는 어떤 외적인 자격이나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회심을 통해 교회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외적인 세례 이면에 내적인 회심이 더욱 중요함을 다음 말씀으로 깨우쳐줍니다. “세례는 몸에서 더러운 때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느님께 서약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1베드 3,21)

우리는 그리스도의 세례를 기념하고 그분의 겸손과 희생의 모범을 본받으며, 외적 형식에 치우친 세례가 아니라 진정으로 복음적 삶을 통하여 주님의 모습을 본받는 참된 신자로서의 삶이 더욱 중요함을 생각하고 올 한해는 내적으로 더욱 충실한 삶을 살 것을 다짐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나는 과연 주님의 세례성사의 은총을 받고 사는 사람으로서 그 내용에 걸맞게 잘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봅시다.

.

(수원교구 1월 소공동체지에서 발췌)

“호세아서의 간추린 소개” 5분 신앙상식

예언자 활동 시기

이스라엘 왕조 최대의 혼란기였던 기원전 750년경부터 725년경을 전후한 시기에 활동했던 호세아는 이 시기에 야기된 많은 부정과 불의와 불신앙을 탄핵합니다

선포 내용

이 혼란의 시기에 이스라엘 왕정은 온갖 불의의 온상이었고,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모든 백성은 하느님을 거역하며 온갖 악행을 저지릅니다. 이에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을 배신한 것과 그 당시 사회 윤리적 죄악을 고발하며 하느님께로 돌아가라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패망의 징벌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이 하느님이야말로 본질적으로 사랑과 용서의 하느님이시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징벌은 사랑의 매임을 선포합니다.

호세아서의 구성

1. 간음한 아내와 충실한 남편(1-3장)

2. 불충실한 국가와 충실하신 하느님(4-14장)
 (1) 역사적인 상황과 현실(4,1-9,9)
 (2) 구원에 대한 약속(9,10-14,9)
 (3) 마지막 경고(14,10)

공지사항

-2011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천주교 산호세 한국 순교자 성당의 모든 교우들이 주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한 성가정과 소공동체를 이루길 기원합니다.
-2월부터 시작하는 마태오 복음 성경 공부 및 성경 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 합시다.

다음 달 성경말씀

마태 5,1-12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육체적, 물질적 가난이 아닌 복음적 의미에서의 ‘가난함’에 대해 생각해 보고 주님안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진정으로 가난해질 수 있는지 묵상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소공동체 기도문

○ 하느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모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모였사오니 여기 모인 모든 이들과 이 가정에 강복하여 주십시오.

● 주님, 저희는 오늘 소공동체 모임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공부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 합니다.

○ 주님께 청하오니 저희와 함께 하시어 엠마오 제자들에게 하신 것같이 저희에게도 이루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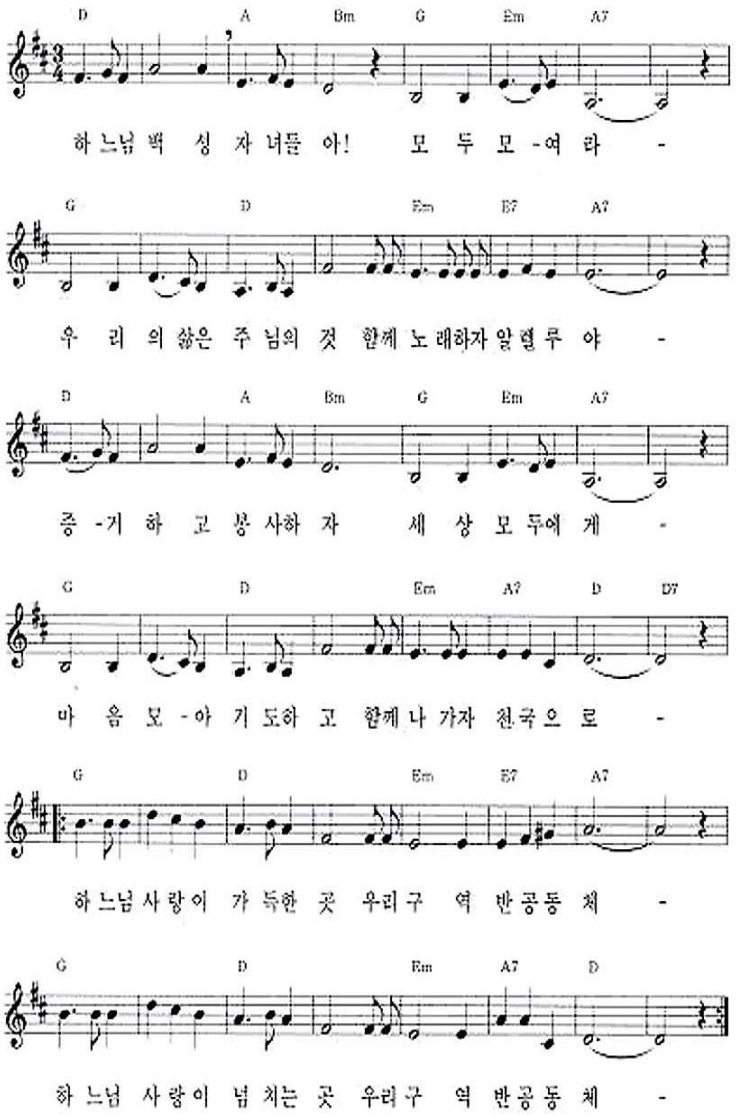
●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빵을 나누듯이 나눔의 생활을 할 때마다 저희의 영적 눈이 밝아져 저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알아 뵙게 하여 주십시오.

○ 문을 닫아걸고 무력함과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신 주님, 저희에게도 성령을 보내 주시어 기쁨과 확신에 넘쳐 주님을 전파하며 주님을 위하여 고통을 받는 것도 기쁨으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 그리하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소공동체가

작사 현 정 수
작곡 현 정 수

기도하며...